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5월 24일 수요일 (음 4월 29일) 제181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 익산 왕궁 악취개선 생태하천 복원 준공

130억원 투입 사업 마무리 수질 96% · 악취 84% 개선 정착농원 · 인근 주민들 생활환경 향상에 크게 반겨

전국 최대 축사밀집지역인 익산 왕궁 정착농원 일대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와 수질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수변활동이 가능한 생태마을로 변신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특히 송하진 지사가 취임하면서 민선6기 전북도정은 최대 역점과제이다 시피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 정착농원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심각한 수질오염과 악취 등에 대한 생태복원이 이뤄지면서 수십년 주민숙원인 생활환경은 물론 새만금 수질이 향상되게 됐다. 전북도는 23일 송하진 지사와 조병욱 새만금지방환경청장을 비롯해 조배숙 국회의원, 정현을 익산시장, 마을

주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 일환인 왕궁 악취개선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익산 왕궁 악취개선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주교제 등지에 오랜기간 동안 퇴적돼 있던 가축분뇨 오니토(퇴적찌꺼기) 4만8,000여톤을 준설·처리하고, 산책로, 생태습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년여에 걸쳐 13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준공을 하게 됐다. 주교제의 경우 왕궁 축산단지내에서도 수십년동안 악취와 수질오염의 가장 큰 진원지이자 대명사처럼 불리던 곳으로, 이번 준공식을 계기로 앞으로 익산천의 생태계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수변공간활동이 가능하게 되는 등 커다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왕궁지역은 호남고속도로 전주 관문과 가까운 곳이어서 현격한 악취 감소로 인한 지역 이미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실제 왕궁지역 합류부인 익산천 대

표 측정지점의 수질환경 기준인 총인(T-P)의 경우 2010년 4.593mg/L에서 2016년 0.358mg/L(92%개선), 2017년 1분기 평균 0.191mg/L(96%개선)로 낮아졌다. 수질 오염물질인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도 2010년 45.9ppm(=mg/L)이었던 것이 올해 1분기 평균 2.6ppm으로 94%, 복합 악취는 측정 시작한 2012년 31에서 올 1분기 5로 84% 개선돼 왕궁 정착농원 주민은 물론 인근 촌포, 삼례지역 주민들도 복원사업을 통해 생활환경이 좋아졌으며 크게 반기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자율협약 체결 등 이곳 농장 주민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결과, 환경개선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물론 익산천의 생태복원을 통해 새만금의 수질개선과 내부개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행정에서 끊임없이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소통과 협력을 해 나간다면 주민숙원은 언제든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23일 오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A조 조별리그 2차전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의 경기, 한국 이승우가 전반 첫 골을 성공 시키고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본사 회장에 김옥길씨



김옥길 전 새마을지도자 중앙회장(사진)이 23일 (주)전주매일신문사 회장에 취임했다.

신임 김 회장은 새만금사랑환경연합 이사장, 평화통일지도자협의회 회장, 한국노총 조직선전국장 등을 역임하는 등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해왔다. 김 회장은 또 전 새누리당 중앙연수원 부원장을 맡는 등 정치권과도 친숙한 편이던 전북도 민일보 이사와 전민일보 사장을 지내는 등 언론계와도 인연을 맺어 지방언론 현실에도 밝다. 경희대 체육학과를 졸업한 김 회장은 운동으로 단련된 다부진 체격에 화려하고 친화적 성격을 바탕으로 젊은 시절부터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광복 행보를 걸어와 친교의 폭이 매우 넓은 전북의 대표적 마당발로 통한다. /김재훈 기자

## 국정기획위 첫 과제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정 운영의 방향을 보여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3일 브리핑을 열어, 보수정부 10년 임기를 끝내고 진보성향 정부의 5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국정기획자문위의 움직임에 사회 각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전의 대통령 인수위 성격이 짙다. 하지만 예년에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래 5년 임기에 대한 청사진을 그렸다면, 지금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나, 또 총리도 내정됐고, 장관들도 하나 둘 발표되고 있다. 이전의 인수위가 정치권과 청와대 비서실의 업무 방향을 잡았던 역할이었다면 지금의 국정기획자문위는 내각은 물론 청와대 보좌진과 함께 논의하며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부터 계획을 짠다는 점에서 정관계에 미치는 현실적 영향력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각 부처가 새 정부의 이념과 철학에 맞게 발굴한 국정과제가 있으면 그것을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을 통해 주요 공약에 대한 부처 간 입장을 조율하고 5개년 계획의 밑그림을 그릴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24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시작으로 사흘간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법무부는 업무보고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김 위원장은 전체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펼쳐놓고 우선순위를 정해 분야별 심층 분석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자문위가 이제 막 업무를 시작했기에 아직 뚜렷한 방향성이 설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강조해온 '검찰

### 문 대통령, 검찰개혁 의지 강해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골자

개혁'이 1호 과제가 될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 개혁은 문 대통령은 물론, 야당의 후보들도 공히 약속한 공약 사안이다. 더구나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것도 국민적 공분을 산 만큼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야권의 반발도 적은 편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골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공약집을 보면 ▲공수처 설치로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차단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일반적 수사권 경찰에 이관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보유 등을 주요 현안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도 문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하는 개혁 방안을 수립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뉴시스

## 한국, '강호' 아르헨티나 제압

조별 2차전서 이승호·백승호 골로 2-1 승리... 16강 진출 확정



신태용호가 남미의 강호 아르헨티나를 제압하고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U-20 축구대표팀은 23일 오후 8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7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A조 아르헨티나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이승우의 선제골과 백승호의 추가골을 묶어 2-1로 승리했다. 1차전 기니를 상대로 3-0 승리를 거둔 한국은 이날 아르헨티나까지 제압하며 24개국 참가국중 가장 먼저 16강에 안착했다. 반면 잉글랜드와의 1차전에서 0-3 패배를 당한 아르헨티나는 이날 한국에게 패하며 16강 진출이 불투명해졌다. 이날 한국은 3-4-3 전술을 꺼냈다. 기니전에서 좋은 호흡을 선보였던 이승우(FC바르셀로나)-조영욱(고려대)-백승호(FC바르셀로나)가 스리톱으로 나섰다. 이승우(전남)-이상현(울산)-이진현(성균관대)-윤종규(FC서울)가 배치됐다. 스리백은 이상민(충실대)-김승우(연세대)-정태욱(아주대)이 나란히 섰고 골문은 송범근(고려대)이 지켰다. 이날 이승우는 전반 18분 1골을 터트려 1차전 기니전에 이은 2경기 연속골을 넣었다. 백승호도 1골을 터트렸다. 백승호는 전반 42분 한국이 패널티킥을 얻어낸 상태에서 깔끔하게 골을 넣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가 후반 5분 만회골을 터트렸다. 교체 투입된 토레스가 페널티박스 정면부근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한국의 골문을 흔들었다. 2-1 상황에서 한국은 끊임없는 아르헨티나의 공격을 막아냈고, 한국은 승리를 지켜내며 환호했다. /김민근 기자

### "전북, 올 여름 덥다"

전주기상청 "평년보다 기온 높거나 비슷할 것"

올 여름 전북 지역은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측돼 더위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기상청장은 23일 '여름철 기상전망 브리핑'에서 올해 여름(6~8월)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무더울 것으로 예상했다. 6월 전반기는 맑고 건조한 날이 많고, 평년(21.9도)보다 기온이 높겠다. 후반기에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거나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 영향으로 구름 낀 날이 많고, 평년보다 기온이 높거나 비슷하겠다. 7~8월에는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평년(7월 24.5도, 8월 25.9도) 대비 비슷하거나 높겠다. 강수량은 6월과 7월에 저조하겠지만 8월에 국지성 호우가 예상된다. 전주기상청장 관계자는 "올해는 6월 초여름부터 무더울 것으로 보여 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제11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

### 5월 28일 (일)

전주 풍남문 문화광장(남부시장 입구)

- 예선일시 및 장소: 5월 27일(토) 오전 10시, 인권상담소 회의실 (☎ 286-6678)
- 문의전화: 063-286-6678, 285-6676, FAX: 287-6676

공동주최: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매일신문  
주관: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시지소